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종광 소설가

모교로부터 '동문 선배와의 만남'에 초청받았다. 금의환향이라도 하는 듯해서 감사히 수락했다. 솔직히 기쁘고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묘한 자괴감이 들기도 했다. 내가 과연 '금의'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만큼 뒤라도 이루어진 자인가. 부를 만하니 불렀겠지 부듯하면서도, 진정 자식별 후배들 앞에서 떠들 주제가 되나 의심스러웠다.

30년 후배들이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작가이면 모르겠는데, 나는 '똥보잡' 소설가다. 책 좀 읽으시는 분들도 '20년 써서 20여 권을 냈는데 처음 들어보고 처음 읽는다'고 하시니 말이다. 경제적·신분·지위 같은 세속적 기준이나 사회 기여도로 따지면 더욱 후배들 앞에 설 자격이 없었다. 미미한 작가라는 이름보다

후배 독서가들은 외롭지 않기를

더 구질구질하고 사회에 도움 안 되고 전망 없는 직업이 또 있을까. 내 또래인, 후배들의 부모님이 훨씬 말할 자격을 가졌을 것이다. 설마 톨 모델이나 귀감을 바랐겠나. 그대 고등학교 때의 나처럼 독서를 즐기고 작가를 꿈꾸는 학생들한테 작가가 된 모습을 보여 주는 것만으로도 격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합리화했다.

30여 명이 맞아 주었다. 어쭙잡은 작가 선배를 만나겠다고 귀한 시간을 내준 학생들답게, 30년 전의 우리들을 보는 듯했다. 생각이 많아 보이는, 책을 즐겨 읽고, 예술적 행위로 스트레스를 풀 것 같은, 언젠가는 작가를 꿈꿀 것 같은 아티스트형 아웃사이더들. 순전히 오해일지라도 후배들에게서 동지애를 느꼈다.

꾸준히 독서하면 의당 오지랖 넓게 이해하는 동시에 문제를 파악하고 의견을 세우고 내는 능력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우리 기성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간절히 원하는 바다. 그 '비판 정신과 창의력'이 출중할수록 따돌림 받고 외로워지거나 경제적으로 도태되는 것이 '불편한 현실'이지만 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후배들에

게 보다 활발한 독서를 권장하기가 저어되었다. 차마 작가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할 수도 없었다. '자기 계발서'처럼 뭐가 됐든 자기가 원하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면 기필코 된다, 꿈을 갖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말하면 편할 텐데, 불편한 현실을 밝히는 '희망 의심형' 소설을 써 온 작가로서 희망의 전도사를 자처할 만큼 뻔뻔하지도 못했다. 두서없이 박박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 여러분이 비판 정신과 창의력을 포기하지 않으면 외로운 데다. 그런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지만, 어른들의 세상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물론 여러분이 우리 사회의 모순을 누구보다도 잘 알 데다. 두루 읽고 넓게 의식하고 세심히 표현하는 사람은 자꾸만 소외된다. 한 달에 한 권 읽는 독자로 사는 것도 벅찬 세상이니, 기여이 작가가 되고자 한다면 더욱 외로울 데다. 그렇지만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여러분처럼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사회가 이나마 강병한 것이다. 우리는 시골 마을의 가로등처럼, 꼭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이다. 아니, 가로등 같은 존재에도 못 미칠지 모른다. 그렇

지만 가로등도 없는 마을의 반딧불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없어도 되겠지만 반딧불이가 있어 여름밤은 한껏 풍성하고 아름답지 않은가.

한심한 선배의 산만한 이야기를 성의 있게 들어주는 후배들이 고마웠다. 듣고 싶은 사람만 모여서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다들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알아서 걸러 듣기도 하고 넉넉히 웃어 주기도 했다. 오히려 내가 큰 격려를 받은 셈이었다.

후배들이 자신의 취향과 특기에 근접하는 책을 찾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기회를 부여받아,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이롭고 자존감 넘치는 업적을 부단히 쌓고, 경제적으로도 무난한 미래를 이루기 바란다. 또 바란다. 지금처럼 책 읽기를 취미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독서의 씨앗을 퍼뜨리는 독서나비'로 살기를. 스무살이 넘으면 독서가 끝나는 세태를 바꿔 주기를. 좋은 책을 아무리 읽어도 진학과 출세에 지장이 없는 제도를 이루기를. 반딧불이 작가들이 최소한의 자부심을 유지하며 빛나는 세상을 만들기를. 자존감 넘치는 작가가 많이 탄생하기를. 먼 훗날 후배들을 만나 독서가와 작가의 짝을 보거든 열렬히 복돋을 수 있기를.

종교칼럼



중현 화순 용암사 주지스님

장마가 끝났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연일 폭염이 이어진다. 전방 11시 방향, 신호 대기 중인 차량 행렬 사이로 오토바이 한 대가 서 있다. 이 불똥 더위에 두꺼운 헬멧을 쓰고, 제법 두꺼워 보이는 긴팔 옷을 입고 그 위에 다시 주머니 많은 조끼를 입은 남자가 타고 있다. 한눈에 봐도 배달 오토바이이다. 보고만 있어도 답다.

'아스팔트 위의 저남자 얼마나 뜨거울까. 이 뜨거운 날씨에 온 머리를 땀방울 싸는 저런 헬멧을 쓰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할까. 하필이면 옷도 시꺼먼 색이네. 사방을 포위하고 있는 차들이 뿜어내는 열기와 매연도 장난 아닐 건데...'

태양이 이글거리는데 대단한 이유가 없는 게 아니다. 그러나 태양이 핵융합 반응을 멈추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썩 짝없이 죽어야 한다. 강물이 그토록 부지런히 흐르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다. 그러나 강물이 우리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목

아스팔트 위의 배달기사

숨이다. 아마도 일벌들은 여왕벌에게 고용되어서 마지못해 꿀 채집을 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태양은 그냥 빛나고, 강물은 그냥 흐르고, 일벌은 그냥 일한다. 그런데도 태양과 강물은 만물을 소생하게 하고, 벌은 달콤한 꿀을 선사한다. 그게 세상의 이치다. 원래 만물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하기 이전부터 한 몸이었다. 태양과 강과 벌과 내가 원래 하나이고 한 몸인데 짐짓 이름만 달리 했을 뿐이다. 이 세상에 홀로 빛나는 벌은 없다.

외형적으로만 보면 인간의 사회적 노동 역시 누군가를 위한 봉사이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의 배달 기사처럼 우리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타인을 위해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열심히 봉사하며 살고 있다. 티끌만큼의 집착마저 없음을 물론이요 봉사한다는 생각조차도 내지 않고 모든 존재들에게 봉사하겠다는 보살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관한 고정관념을 머리 속에서 말끔하게 지우고 우리 사회를 보면, 사회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는 이타행을 실천하는 성인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타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애쓰면 예술수록 나의 욕망이 충족되는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

가고 있다. 자비심, 봉사 같은 덕목이 들어설 자리에 개인의 이기심이 당당하게 버티고 있다. 우리들의 이타적인 봉사는 이기심에 저당 잡혀 있다.

몇 년 전부터 '기술어린 운동장'이란 표현이 세간에 자주 오르내린다. 모두가 동등한 조건에서 이 시스템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현실의 비유다. 역사 이래로 많은 이들은 타인의 행복을 위하나의 불행에 감내해야만 하는 이타적인 삶을 강요당했다. 노예가 그랬고, 농노가 그랬고, 민초가 그랬다. 인류 불평등은 매우 뿌리 깊은 현상이다.

요즘 세상은 타인의 삶에 무관심해도 당장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다. 이 시스템이 알아서 친절하게 세상과의 소통을 대신 해주기 때문이다. 굳이 두꺼운 지갑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카드 하나면 만사형통이다. 한 장의 카드만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 카드 한 장으로 만든 세계이므로 카드만 사라지면 곧바로 무너지고 마는 세계다. 편리한 만큼 희망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는 한 장의 편의함에 길들여졌다. 그 결과, 개인의 이기심과 욕망이라는 벽을 높이 쌓아 놓고 혼자만의 방 안에서 세상을 접할 뿐이다. 모두가 자기만의 세

계 속에서 자기만의 삶을 살아간다.

확막한 도로 위는 우리들의 모습과 흡사하다. 1억 원 정도는 가볍게 넘을 듯한 비싼 차부터 배달 기사의 오토바이까지 각양각색의 탈 것들이 도로 위에 늘어서 있다. 각자 자기 차 안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보잘 것 없는 신호등의 불빛에 좌지우지되기는 마찬가지 신세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살리기가 1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하다. '일자리 쇼크'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고용시장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부동산 투기 역시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최저 임금제 인상은 노사 양측 모두로부터의 저항에 부딪혔다. 기술어린 운동장을 바로 잡는 일도 이리 힘든데 이기심을 위한 이타적인 봉사의 굴레를 벗어나기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사회 정의의 실현 없이 불교적 이상향을 말하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남의 양을 열심히 세고 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미안할 정도로 오랫동안 신호는 바뀌지 않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신호가 바뀔 때까지 나의 불편한 시선은 저 배달 오토바이에 붙잡혀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다.

기고



신재욱 광주시 도시계획팀장

광주다운 도시 계획

저성장, 고령화 등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낯선 길을 걷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도로를 개설하거나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는 하드웨어 도시계획만으로는 미래의 가치를 담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광주시는 '광주다운 도시 계획'이 해답임을 알게 되었다. 광주다운 도시란 '앞서가는 대규모 도시를 뒤쫓는 것이 아니라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창성을 상품화, 브랜드화, 산업화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국제 관광도시로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도시 계획 측면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첫째, 과거의 전통적 도시 계획의 틀에서 벗어나 '수용하고 적용하는 참여적 도시 계획(participate planning)'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 계획은 여러 가지 요소와 장·단기적인 계획이 동시에 수립되어야 할 뿐 아니라 물리적이며 사회·경제계획이 입체적으로 짜여진 계획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물리적인 계획만으로 도시 계획을 추진하기에는 현대의 복합적인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민 참여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도시 계획 체계

에 익숙한 현실에서 아직까지 실험적 도시 계획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지만, 시민 참여 계획은 이상과 현실을 잇는 다리이기 때문에 광주시 도시 계획의 기저로 두고 있다.

둘째, '성장에서 성숙으로' '양적 공급에서 질적 수준의 향상으로' 변화하는 시대를 읽는 눈을 가지고 '소프트 파워형 도시 계획(soft power planning)'을 추진하고 있다. 이따부터 시행하고 있는 '광주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에는 4가지 기본 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그중에 건축물 디자인이라는 소프트웨어적 측면을 추구하고 있다. 광주에 오면 건축물이 도시의 볼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허용 용적률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역사 보전, 우수 디자인, 친환경 요소를 반영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주택이 부족한 시대에서 공급률이 안정화된 시대로 변모하고 있는 시대적 패러다임을 반영한 정책이다. 주택 보급률이 안정화된 현대 시대에는 건축물 디자인 수준 향상이 도시의 품격과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치 있는 도시 계획이라고 본다. 또한 우리시는 시법적으로 민간 아파트에 공동주

택 설계 공모를 도시 계획 변경 사전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설계 공모 아파트 사업이 계기가 되어 앞으로 광주시에 한 단계 성숙한 아파트 건축물이 파급되기를 기대해 본다.

셋째, 그간 치중하였던 물리적 계획에서 벗어나 문화, 관광, 경제, 일자리 등과 융합하는 '플랫폼형 도시 계획(platform planning)'을 구상하고 있다. 요즘 '플랫폼'이란 말이 유행이다. 유행하는 개념들이 그렇듯 '플랫폼'이란 말도 여기저기 이런저런 뜻으로 쓰이고 있다. 기차역 플랫폼은 다양한 기차와 수많은 사람을 연결하고 있는 것처럼, 도시 계획의 플랫폼의 개념은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을 위하여 다양한 생각과 사람, 수요(needs)들이 도시 계획의 기반에서 연결되는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낯선 길을 걷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헤르만 헤세는 "낯선 길이란 없다. 단지 여행자가 낯설 뿐이다." 이라고 하였다. 광주가 광주답게 나아가 수 있도록 정의로움 가치 철학과 풍요로운 도시 경관이 녹아든 소중한 자산을 만드는 일에 차근차근 준비하며 실행하고자 한다.

社說

세계수영대회 경제 효과 극대화 전략 마련을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하계-동계 올림픽과 월드컵 축구 및 육상선수권대회와 함께 세계 5대 스포츠 이벤트로 꼽히는 세계수영대회의 파급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성과는 달라질 수 있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내년 7월 12일 개막하는 수영선수권대회는 경영·다이빙·수구 등 6개 종목에 걸쳐 17일간 광주와 여수에서 펼쳐진다. 이어 수영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마스터즈 대회가 8월 5일부터 14일 동안 진행된다. 참가 규모는 200여 개국 1만5000명에 이른다.

광주발전연구원이 추산한 대회의 경제 효과를 보면, 생산 유발 효과 전국 2조 4000억 원 광주 1조 4000억 원이고, 부가 가치 효과도 전국 1조 원 광주 65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광주 1만8000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만4000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대회 기간 전 세계 수영 명인 TV를 통해 대회를 지켜보게 된다. 따라서 이번 대회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지향하는 광주의 문화 콘텐츠와 전남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및 관광 자원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조직위는 대회 기간 중 50여 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과 일본·중국 등지의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을 연계한 다양한 관광 마케팅이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전남도의 경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준비가 없는 듯하다.

우리는 3년 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를 '저비용 고효율'의 성공적인 대회로 치러 낸 자력이 있다. 지금부터라도 광주시와 전남도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무한 공창을 통한 전세기 운항이나 KTX·SRT를 이용한 광주-전남 패키지 투어 등 다양한 관광 상품을 조기에 마련해 적극 홍보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기대했던 경제 효과를 제대로 거두고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시험지 유출 사실 공개 학생들은 정의로웠다

광주의 한 사립 고교 3학년 중간·기말고사 시험지 유출 사건은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부정행위만큼은 바로잡아야겠다는 학생들의 결단으로 인해 처음 외부에 알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학교 학생들은 시험지 유출 증거를 포착한 뒤, 상당 시간 토론을 거쳐 학교 측에 신고하는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광주서교육청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 학교 운영위원장인 어머니로부터 시험지 편집본을 받은 아들은 이른바 '족보'라며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는 친구들에게 자랑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 족보에서 서술형 문제까지 시험에 그대로 나왔다. 이에 18명의 학생들이 '족보'를 촬영한 뒤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연서를 작성해 학교에 신고하기에 이른다.

이들 학생들은 어쩌면 지나친 인성에 있어 한두 번 정도도 맞닥뜨리기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을 것이다. 함께 속삭이며

고생한 친구의 부정행위를 고발한다는 괴로움에다, 이후 자신들을 포함한 3학년 모두가 수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너희 때문에 우리 학교는 물론 광주 학생들까지 모두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식의 주위 비난이 쏟아질까도 두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눈물 속에서 토론을 한 끝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 확실한데도 정의로움 선택을 했다. 당장 두 달이 남지 않은 대입 수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모르지만 부정·불법으로 입학하려는 행태는 막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이제 부끄러운 어른들이 답할 차례다. 시교육청은 근본적인 시험지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시험지 유출처럼 많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는 보다 엄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유네스코의 무등산권 지질공원 인증을 계기로 광주에서도 새삼 '지오 투어리즘'(geo tourism)이 화자되고 있다. 지오 투어리즘은 지형(geomorphology) 또는 지질(geology)을 뜻하는 영어 접두어 '지오'(geo)와 관광을 뜻하는 '투어리즘'(tourism)의 합성어로, 지형·지질 자원을 관광 상품으로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관광이 '골목 없는 산업'으로 각광받으면서 전국 지자체들은 지역 자원을 관광 상품으로 팔기 위해 혈맥은 조금 다르지 않아 돼 있다. 걷기 열풍과 맞물려 제주 울레길 같이 유명세를 타자 앞

포비아'(tourism Phobia: 관광 공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다. '오버 투어리즘'(over tourism)이란 용어도 마찬가지다. 수용 불가능한 관광객이 관광지에 몰려들어 마을을 점령하고 주민들의 삶을 침범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 때문에 실제 부담은 한 해 입국자 수를 제한하고 있고,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신규 호텔 허가를 중단했다고 한다. 전주 한옥마을과 여수시 종포 해양공원 부근의 주민들도 이런저런 고민이 많다.

맥락은 조금 다르지만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과 '그리프 투어리즘'(grief tourism)도 이런 문제를 완전히 비껴가지는 못하는데, 다음 아님 윤리적 문제에 대한 고민이다. 죽음을 상징하는 '다크'(dark)와 비탄(悲歎)을 뜻하는 '그리프'(grief)란 단어가 말해 주듯, 재난과 대형 사고가 발생했던 역사적 장소나 그 현장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는 여행인데, 뜻밖에 죽음을 돈벌이에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투어리즘 열풍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는 것은 경제적 풍요보다 더 중요한 가치도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윤영기 사회부장 penfoot@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관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구독 신청·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편 집 부 220-0649 경 처 부 220-0632 정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64 전 납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여 론 채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FAX 02-773-9331)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